서양 역사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미적 특성 연구

이 연 희 · 성 광 숙⁺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xaggerated Hairstyle in the Western Costume

Yeon Hee Lee · Kwang Sook Sung⁺

Professor,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myong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9. 22, revised date: 2015. 11. 3, accepted date: 2015. 11. 1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 phenomenon of exaggerated hairstyle in the history of Western custom through publications related with Western costume and research papers. By adopting the criteria of Delong, M. R. to analyze visual forms shown by interaction between human body and costume worn over the body, it analyz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by the interaction between hairstyle and costume. In addition, it inferre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through content analysis of examined phenomenon focusing on socio-cultural background and costume socio-psychological precedent studies.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xaggerated hairstyle applied by analysis criteria of Delong, M. R. were in pursuit of the emphasis style. This was clearly and intensively recognized by forming spaces for mostly closure style, part style, three dimensional style, determinate style, and space separation style. Regarding the interaction between hair and ornamentations, 'precedence of ornamentation' was pursued as ornamentations were recognized earlier than the hair itself. It means associative meanings of the surface effect were accompanied by emotions of 'intensiveness' and the pursuit of the attractive style. As for the interaction between hairstyle and costume, there were many cases of pursuing 'continuity' mutually and visually by connecting the hairstyle and the costum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xaggerated hairstyle were inferred as 1) the expression of the spirit of the age(i.e. art, culture, politics, society, ideology, religion), 2) symbols of wealth, class, authority, and excellence, 3) pursuit of addicted desire to ornament, and 4) harmony through continuity with costume. This study verified that hairstyle was connected as a part of costume, or formed as a way to express deeper human psychology beyond just a part of a costume. It was also confirmed that hairstyle was an expressive method to express the spirit of the age, such as art, culture, society, religion, ideology.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특성), exaggerated hairstyle(과장적 헤어스타일), Western costume(서양 역사복식)

I. 서론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복식에 나타나는 과장 현상은 복식을 통해 무언가의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이며, 인간의 의지가 담긴 미적표현이다. 복식에 나타나는 과장은 복식심리의 극단적인 전개에 따라 정상적인 복장의 경지를 넘어서 이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Sung, 2004). 과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이다(*Exaggerate, n. d.*). 따라서 “복식에서 과장의 의미는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확장되거나, 축소, 또는 왜곡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Bae, 2008b, p. 15). 복식에 있어 형태의 과장은 인간의 표현성의 욕구에 따라 인체 고유의 형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형태감의 특별한 강조인데, 욕망하는 것의 이치적인 움직임에 의해 나타나는 표현 형식으로 이는 외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포하고 있는 내재적 정신과 감정의 발현체로 인식되는 것이다. 복식의 과장이라는 미적 형식에는 반드시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의 미적가치가 있으며, 그 가치는 복식의 과장이라는 통합된 표식을 구축하는 인간 존재와 그 표식들 속에서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는 개성이 아닌 문화사회적인 집단적 공통성을 지닌 복식 표현이므로 복식의 과장에 대한 이해는 복식과 인간 관계구조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행위를 탐구하는 의의 있는 일이다. 패션전문자료사전에 헤어스타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헤어스타일은 머리형, 헤어두(hairdo)라고도 하며, 프랑스어의 쿠아퐁르(coiffure)에 해당한다. 머리형은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모두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고 어느 시기에는 의복을 능가하여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으며, 계급이나 성별을 나타내는 중요한 포인트였다(Hairstyle, n. d.-a).

따라서 헤어스타일의 과장 현상은 의복 과장과 밀접하며, 혹은 의복을 능가하는 독특성을 지님으로 복식의 일부로서가 아닌 독자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식의 과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Sung(2004): Bae(2008a) 등이 복식에 나타난 과장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Kim & Kim(2005)은 중세의 이상적 인체미에 따른 복식과 머리 형태, Lim & Kim(2007)은 로코코와 조선후기를 비교한 확대형 두발 양식의 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본고는 위의 연구들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헤어스타일에 나타나는 과장 현상에 중점을 두어 연구함으로써 복식 과장 현상의 연구 결과를 축적, 확장하고, 복식을 통한 인간생활 행위 탐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먼저 서양 복식 관련 서적과 논문을 통해 서양의 역사복식 가운데 헤어스타일의 과장 현상을 고찰하였으며, 조형성 분석은 통상 디자인의 원리와 요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지만 본고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는 기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이에 적용할 선행 연구가 부재하다. 따라서 연구자는 Delong의 저서 'The way we look'에서 밝힌,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 형태를 분석하는 기준을 도입하여 헤어스타일 및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시각 형태 분석에 적용하여 조형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Delong, 1997). 아울러 미적 특성은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상 사회심리학적 선행 연구를 적용하여 헤어스타일에 고찰된 현상을 내용 분석 하였으며, 유추된 특성을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논의하였다. 역사 복식의 과장적 헤어스타일을 살펴보면, 먼저 고대 이집트에서 왕과 귀족 남자들의 삭발과 그의 남아들의 변발이 있으며, 이 같은 스타일은 기후와 종교, 청결한 민족의식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고찰되나, 이를 과장적 스타일로 판단하기 모호하다. 그리스 시대는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미학으로 인해 복식 전반에 과장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스의 전통을 계승한 로마 역시 과장적 헤어스타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르네상스 시기는 복식의 과장 현상이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목에서 머리 위에 다다를 정도로 러프(ruff) 칼라의 과장이 극대화함으로 인해 헤어스타일의 과장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과장적 헤어스타일이 고찰된 15세기, 17세기, 18세기 후반, 19세기 낭만주의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으며, 20세기 이

후의 현대는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발학 사전에 의하면 '헤어스타일'은 우리말로 '머리 모양'이며, 머리 꾸밈새의 총칭이라 정의하였다(*Hairstyle, n. d.-b*). 그러므로 본고의 '헤어스타일'이라 함은 머리카락과 거기에 사용된 장식을 포함하여 꾸민 것까지를 범위로 하며, 모자를 이용한 꾸밈은 제외한다. 단, 모자와 장식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는 장식으로 포함하여 논의한다. 아울러 헤어스타일은 의복과 관련하여 발전됨으로 연계되는 의복의 과장 현상이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될 것이나, 한정된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II. 역사 복식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조형성 분석 기준

Delong(1997)은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 형태를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 바, 본고는 이 기준이 헤어스타일 및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시각 형태 분석을 위해 유용한 기준으로 보고 이를 응용하였다. 그가 제시한 다양한 분석 기준 가운데 본 연구에 응용하여 적용되는 기준들의 구성을 보면, 대상의 공간, (폐쇄형-개방형, 부분형-전체형, 평면형-입체형, 명료형-

불명료형, 공간분리형-공간통합), 선재 구조로서의 인체 (인체 우선형-복식 우선형),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계슈탈트 편성요인: 유사성-폐쇄성-근접성-연속성, 부분수정 요소: 방향, 크기), 의미 연상(흥분감, 평온함, 강렬함, 우아함) 등이다.

각각의 개념을 헤어스타일에 응용 적용하여 살펴 보면, 먼저 대상의 공간에서, 폐쇄형-개방형은 대상(헤어스타일)과 인접 배경이 상호 폐쇄적인가 개방적인가의 구별이며, 부분형-전체형은 전체(복식)와 부분(헤어스타일) 중 어느 것이 먼저 지각되는가의 관점이다. 평면형-입체형은 (헤어스타일)표면 공간이 입체적인지 평면적인지 관찰하는 것이며, 명료형-불명료형은 (헤어스타일)표면 가장자리의 공간 점유가 명료한지 불명료한지를 파악한다. 공간분리형-공간통합형은 (헤어스타일)전체의 모양이 바탕으로 부터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통합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복식에 '선재하는 구조로서의 인체'에서 인체 우선형-복식 우선형은 인체와 의복 사이의 시각적 상호 관계로서, 인체와 복식 중 우선적으로 시각적 초점을 제공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헤어와 장식의 상호 관계로 응용할 수 있으므로 헤어 우선형-장식 우선형으로 대입해 적용하고자 한다.

<Table 1> Formative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inferred aesthetic features of hairstyle expressed in history of Western costume

Formative Analysis (Focusing on analyzing criteria of Delong, M. R.)		Inferred aesthetic characteristics
space of object	closed - open	- Expression of the sprite of the age(art, culture, politics, society, ideology, religion, etc.)
	whole - part	
	flat - rounded	
	determinate -indeterminate	
	plana separation -integration	
interrelation of hair & ornaments	hair - ornaments priority	- Symbols of wealth, class, authority, and excellence
part-to-whole relation (Gestalt Organizational factors)	similarity, closure, proximity continuation	- Pursuit of addicted desire to ornament
part-to-whole relation (part modifiers)	direction, size	- Balance and harmony through continuity with costume
association of meaning (expressive effects)	excitement - calmness - strength - delicacy	

다음으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유사성-폐쇄성-근접성-연속성은 의복 상호간의 특성을 계슈탈트 이론에 근거하여 파악하는 것이지만, 복식은 헤어스타일을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부분(헤어스타일)과 전체(복식)를 파악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유사성은 유사한 부분들이 (헤어스타일과 의복에서) 동일한 차원 내지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폐쇄성은 부분(헤어스타일)들이 전체(복식)로부터 이탈되거나 분리되는 특성을 갖는 것이다. 근접성은 부분(헤어스타일)들이 (의복에) 근접한 공간적 배치의 유사성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음으로 인해 그룹으로 지각되는 것을 말한다. 연속성은 (헤어스타일과 의복의) 여러 부분들이 한 방향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의 연결을 말한다. 부분 수정요소는 (헤어스타일의) 방향, 크기 등을 관찰한다. 의미 연상은 전체적인 관념, 즉 메시지, 의미, 표현 효과, 성격 등을 통합하는 일로, 분리된 부분(헤어스타일)들을 전체(복식)로 융합하는 것으로, 흥분감(excitement)-평온함(calmness)-강렬함(strength)-우아함(delicacy)으로 구분된다 <Table 1 참조>.

Ⅲ. 역사 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특성 분석

각 시대별로 고찰된 과장적 헤어스타일과 이에 대

한 Delong의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예술적 배경을 조망하고 사회심리학적 선행연구들을 적용하여 고찰된 헤어스타일에 대해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으며, 이를 <Table 1>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시대별로 나타나는 과장적 헤어스타일과 구체적인 시기를 <Table 2>로 제시하였다.

1. 15세기: 고딕에서 르네상스로의 전환기

기이한 머리 장식인 <Fig. 1>은 그물 모양의 철사 망 위에 육중하고 딱딱하며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 빨 난 형태의 부르레(bourrelet)가 올려 지고 때로는 이 구조물 위에 접은 린넨을 얹어 놓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머리를 양쪽으로 또아리 모양으로 말아 올려 덮는 기구를 템플러(templer)라고 하는데 크기도 점점 커지게 되며 보석 장식을 했으며, 철망이 템플러 양 옆에서 위쪽으로 곡선을 이루며 올라가 베일을 받쳐주어 빨 모양을 이루고 있다<Fig. 2>(Payne, 1988). 뿐만 아니라 머리를 뒤로 빗어 바로 정수리 아래에서 또아리형으로 말아 올리고 에닝(hennin)의 모양과는 완전히 다른 짧고 뭉뚱한 모자를 말아 올린 머리 위에 썼는데 모자와 머리가 닿는 부분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앞에서 보면 수평상태로 보인다. 비치는 베일을 접어 눈에 보이는 철사줄에 받쳐지도록 걸쳐 완성한다<Fig. 3>. 이때 앞머리는 뽑거나 면도를 해서 뒤로 많이 벗겨져 있다(Payne, 1988). 헤

<Table 2> Chronology of exaggerated hair style in history of Western costume

Age	Period of popularity	Exaggerated hair style
15C Gothic&Renaissance	from 1410 to the end of 15C	a style using a bourrelet a style using a templer excessive shaving of forehead and nape
17C Baroque	early half century from the 1630's	Cadenette style(male)
	from the late 1660's to the early 18C	huge periwig (male)
	for 30 years from the 1680's	Fontange
18C Rococo	from the 1770's to the 1780's	a style at the time of Marie Antoinette
19C Romanticism	from the late 1820's to the early 1830's	Apollo's knot

어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거대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모자도 착용되었는데, 최고 길이가 10피트까지 길어진 고깔 모양의 모자인 에닝을 쓰고, 때로는 꼭대기에 길고 비치는 베일 달거나, 철사세공으로 나비 모양으로 만들어 뻗도록 디자인한 커치프를 위에 하기도 했다. 또한 에닝에서 변형된 낮은 고깔이 양쪽으로 달리고 그 위에 흰 베일로 장식한 에스코피온(escorpion)〈Fig. 4〉을 착용하여 거대한 스타일을 완성하였다.(Go, 2008) 이상의 모든 스타일은 머리카락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머리 장식으로 완전히 감싸고, 이마나 목덜미를 뽑거나 면도를 하고, 눈썹은 초생달 모양으로 뽑는 것이 프랑스와 플랑드르에서 유행하였으며, 이탈리아인들은 더 많은 이마와 목덜미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했고 (Payne, 1988)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기준이 되어 앞머리가 더 넓게 뽑아 벗겨져있다(Fig. 5).

먼저 조형성을 살펴보면, 대상의 공간을 관찰하면, 장식의 형태가 뚜렷이 인지되지만, 투명한 베일이 장착된 부분은 인접 배경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폐쇄형과 개방형, 명료형과 불명료형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강렬함과 우아함이 동시에 표현되어진다. 스타일 전체보다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부분적으로 인지되는 부분형이며, 여러 가지 요소와 모양들로 분할되어 인지되는 공간 분리형이다. 헤어와 장식의 상호 관계는 헤어보다 장식이 우선적으로 인지되는 장식 우선형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계슈탈트

편성요인은 부르레나 갈라진 양뿔 모양의 과장된 헤어스타일이 땅에 끌리는 정도로 넓은 장식적 소매와 길게 늘어진 트레인의 과장된 형태, 그리고 의복의 화려한 재질감 등으로 인해 상호 근접되거나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연결감을 주어 '연속성'으로 파악된다. 15세기는 12세기 부터 시작된 고딕양식의 말기이며, 르네상스 양식이 시작된 과도기적인 양식의 전환기이다. 따라서 15세기는 두 가지 양식적 특징이 공존하여, 복식사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신비한 시대로서 복식의 기이함이 나타난다. 고딕 양식은 첨두형 아치로 특징 지워지는데, 십자군 원정을 통해 아랍의 건축에서 영향을 받아 프랑스에서 발생하였다. 고딕 양식은 장엄함, 하늘로의 비상, 수직적 특성을 지닌다. 이론적으로 높이에서 어떤 한계도 갖고 있지 않은 고딕 건축 구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의 정신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 개성과 창조의 산물로 구속되지 않는 예술의 해방을 의미했다. 고딕 양식은 시민 계급이 영향력을 획득해가던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자신의 법칙을 기록했던 로마네스크 양식과는 반대로 시민 계급의 정서를 표현 한 것이기도 했다(Boehn, 2000). 르네상스 양식은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에 벗어나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고전 미학의 좌우대칭의 균제·균형을 중시하고 수평성을 강조했다(Renaissance, n.d.). 15세기의 뿔 모양 부르레, 육중한 템플러와 뿔모양 장식,

〈Fig. 1〉 using bourrelet (1420s) (Go, 2008, p. 148)

〈Fig. 2〉 using templer (the early 15c) (Hats, 1998, p. 30)

〈Fig. 3〉 front of horizontality (1479) (Payne, 1988, p. 196)

〈Fig. 4〉 escorpion (1450) (Hats, 1998, p. 30)

〈Fig. 5〉 high brow (1460),
(Payne, 1988, p. 272)

〈Fig. 6〉 cadenette (1634),
(Boehn, 2000, p. 355)

〈Fig. 7〉 massive periwig
(1690s),
(Jung, 1999, p. 227)

〈Fig. 8〉 fontange (1694),
(Payne, 1988, p. 432),

에스코피온, 에냉 등 이 시기의 확대 과장된 기이한 스타일 장엄함과 하늘로의 비상, 수직적 지향적 감각 등 고딕적 이상이 완성된 형태이며, 아울러 뿔 모양 부루레, 육중한 템플러와 뿔모양 장식의 좌우 대칭적 수평 확대 현상은 동시에 르네상스적 미의식과 인간 중심적 사고가 추구된 양식의 전환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마의 머리카락을 과도하게 뽑고, 감싸 올리고 노출된 뒷덜미의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도 얼굴이나 목 등을 길게 보이게 하는 수직 지향적인 미적 감각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고딕시대의 수직 지향적 미감이 인체 이상형에도 영향을 미쳐, 가늘고 긴 몸매, 긴 목, 이마가 넓은 것이 미인의 기준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형성에서 강렬함과 우아함이 동시에 인지되도록 디자인이 개발된 것도 종교적 신비감을 조성하려는 고딕 양식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5세기는 트레인의 시대이다. 길게 끌리는 옷자락 〈Fig. 1, 3〉은 중세의 발명품으로 그리스, 로마나 비잔틴 어디에서도 등장할 때의 품위를 고조시키는 이러한 수단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당시 숙녀들이 큰 잔치때 입었던 옷은 4미터나 바닥에 끌렸다고 한다(Boehn, 2000). 꼬뜨, 쉬르코, 쉬르코투베르, 우플랑드, 로브 등 대부분의 여성 복식들에서 하방형 확장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며, 우플랑드의 거대한 소매 역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15세기 과장된 헤

어스타일과 의복의 과장된 스타일이 상호 형태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스케일에 있어 상호 균형을 이루며, 의복과 연계된 시각적 연속성이 구축되었다.

Veblen은 유한계급 이론을 통해, 의복 행동의 동기를 유한계급의 표시라고 지적하고, 상류계급의 경제력과 지위를 자랑해 보이는 과시적 소비로서의 '의복 지위론'을 주창하였다(Akinory, 1999).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으로부터 인정 및 칭찬 받고 싶은 사회적 승인 욕구와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복식에 있어 과장적 스타일을 야기시키는 주요한 인간내면 심리이다. 15세기 두발 양식은 시민계급의 성장과 축적된 부를 과시하고자하는 욕구의 표현으로, 착용자가 부자이며 유한계급의 일원으로 어떤 노동에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음을 나타내는 예로 제시되어, 복식의 암시를 통해 보는 이로 부터 자신의 부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는 것(Horne& Gurrel, 1988)이라 하겠다. 아울러 소매 디자인에 폭과 길이를 늘려 기이한 모양을 더욱 강조하고 털과 보석, 화려한 자수 등으로 치장한 15세기의 대표적인 복식인 우플랑드의 과장성 역시 당시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에 의한 시민성이 강하게 나타난 데 기인한다. 헤어스타일의 과장이 수직적일 뿐 아니라 수평적인 좌우의 확대, 그리고 뒤쪽으로 확장된 후방 확대(〈Fig. 3〉)가 고루 나타나는 것은 양식적인 특성을

초월해 극단적인 심리의 과시적 표현으로 치달고 있음을 나타낸다.

Black & Garland(1997)는 이 시기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말하기를 여성패션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옷이 아니라 머리 모양에 있었으며 그때까지 그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머리 모양과 머리 장식은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1410년 직후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장 격렬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은 빨모양의 머리였다고 한다. 그것은 아마 중세 시대 서부 유럽의 패션계를 강타했던 가장 우스꽝스러운 스타일로, 마치 암소의 빨처럼 4피트 길이까지 길게 뻗은 철사로 된 거대한 장식을 위에 얹어 베일을 두르기도 했는데 프랑스 샤를르 6세의 비, 이자벨은 궁전의 문틀을 더욱 높고 넓게 만들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엄청나게 커다란 머리모양을 할 만큼 충분한 머리카락을 가질 수 없기에 다양한 가발과 헤어피스에 의존했다고 한다(pp. 161-171). 또한 Jung(1999)은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페스트로 인한 종교에 대한 회의로 기독교 관념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심리로 인해 자신의 치장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복식의 장식과 화려함이 추구되었다(p.142)고 하였는바, 이러한 향락 추구적 사회 분위기와 내면 심리가 만나 나르시즘적 자기 환상과 우월감을 추구하는 탐닉적인 치장에 빠져들며 이 형태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되며 받아들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 16세기: 바로크 시대

바로크 시기는 유일하게 남성 헤어스타일에서 과장된 스타일이 나타난다. 17세기 전반부에 러프 칼라가 사라짐에 따라 남성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오른쪽은 귀 위를 덮을 정도였고, 왼쪽은 어깨까지 길게 늘어지게 했으며,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부분은 길게 웨이브지게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땅거나 묶었는데, 이 부분을 카드네트(cadenette)라 불렀다(Fig. 6). 오노레 달베르(Honor d'Albert)라는 카드네(Cadenet)의 귀족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한다(Boehn, 2000). 이 스타일은 때로 길게 기른 한 쪽 머리에 리본 등으로 장식하는 러브록

(lovelock)을 만들기도 하였다(Go, 2008).

아울러 본 연구의 주제인 과장형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최초로 여성이 머리를 어깨 정도까지 잘라 남성보다 짧은 머리형이 유행하는 주목할 만한 이탈 현상이 있었다. 다음으로 17세기 후반부에 루이 14세인 젊은 왕의 대머리를 감추기 위해 가발(periwig)을 사용하기 시작해, 상류 사회와 궁정에 유행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화려한 의상과 조화되어 매우 중후하고 거창한 형태로 변화하였다(Fig. 7). 각종 분을 뿌려 갈색, 연두색, 회색, 흰색 등으로 착색하였고, 포마드로 고정시켜 향수를 뿌렸다. 실내에서는 무거운 가발을 벗고 린넨이나 울로 된 캡을 썼으며, 외출 시에는 상아나 은으로 장식된 빗을 가지고 다니며 궁적 장소에서 머리를 빗는 것을 멋으로 여겼다(Jung, 1999). 가발에 분을 뿌리는 것은 1690년대 유행으로, 밑으로 꼭 퍼진 가장 큰 가발이 씌여 졌으며 어떤 사람의 가발은 낙타를 진 것만큼 커다랗고 거기에 적어도 몇 말의 머리분을 뿌렸다고 한다(Payne, 1988). 머리 윗부분의 높이와 형태, 굽을 거리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 알롱쥐(allonge) 가발은 고불고불한 머리가 가슴과 등 뒤로 내려오고 어깨는 드러나며, 극단적으로 높아졌는데 가운데 가르마는 그대로 남아있으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구름(cloud)가발은 화려하고 장중한 구름 모양의 가발로 가격이 매우 비싸고, 프로이센에서는 1698년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음에도 그것을 쓰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조차 알롱쥐 가발을 썼다(Boehn, 2000). 여성의 헤어스타일로, 1678년 프랑스 루이 14세의 애인인 풍탕주 공작부인에 의해 유행된, 아마포로 약 2피트 높이로 세워진 파이프오르간 형태의 머리장식이 탄생하였다. 이 구조물을 풍탕주(fontange)〈Fig. 8, 9〉라 하는데, 금속막대로 모양을 고정하고 레이스로 주름을 잡고, 리본으로 사치스럽게 장식되어있는데 루이 14세가 죽을 때까지 30여년 간 유행하였다(Boehn, 2000).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카드네트 스타일의 대상의 공간을 관찰하면, 여성 스타일과는 달리 인접 배경과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 개방형이며 가장자리 라인도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불명료형이다. 스타일

〈Fig. 9〉 fontange (1690s)
(Go, 2008, p. 199)

〈Fig. 10〉 Marie Antoinette style (1770s)
(Payne, 1988, p. 490)

〈Fig. 11〉 Marie Antoinette style (1785)
(Hats, 1998, p. 30)

〈Fig. 12〉 (1828) apollo's knot(Payne, 1988, p. 490)

에 있어 부분보다는 전체가 인지되는 전체형이며, 전체 내에 분리되는 요소가 없는 공간 통합형이다. 헤어와 장식의 상호관계는 장식이 없는 헤어 우선형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게슈탈트 편성요인은 연속성으로 파악되는데, 르네상스 시기의 남성의 역삼각형 몸매의 추구에서 벗어나 딱딱하고 정형화된 구조적 형태로 부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흐름이 있는 비정형적 실루엣, 불명료한 라인으로 고전 미학의 규정된 틀에서 이탈하는 자유분방한 패션을 착용하였는 바, 비대칭의 왜곡된 헤어스타일과 상호 유사 형태는 아니지만 탈정형적인 스타일상의 '연속성'으로 파악된다. 의미연상(표면효과)은 다른 느낌보다는 왜곡에 의한 '흥분감'을 자아낸다.

거대한 가발과 풍탕주는 폐쇄형, 전체형, 입체형, 명료형, 공간 통합형이며, 거대한 가발은 헤어 우선형에, 폐쇄성을 지니며 강렬함의 표면효과를 느낄수 있다. 풍탕주 스타일은 장식 우선형이며, 풍탕주의 겹주름진 레이스 소재가 늘어 뜨러지면서 가슴과 소매끝의 레이스 러플 장식으로 근접되어 이어지며 페티코트의 주름이나 뒤로 젖혀 고정시킨 오버스커트의 드레이프진 주름과 뒤로 끌리는 트레인의 주름들과 연속되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유사하고 밀접하며 근접해있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유사성, 근접성, 연속성 등이 형성된다(Fig. 8, 9). 표면효과는 높이에서

오는 '흥분감'과 우아한 레이스로 인한 '우아함' 등이 연상되어진다. 방향을 보면 마치 풍탕주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것 같은 부분이 있어(Fig. 9) 상향과 하향이 동시에 확장되었다. 거대한 가발은 장식이나 보강제가 없는 상태 하에서 가능한 상향, 좌우, 하방 확대가 전체적으로 추구되었다

르네상스로 부터 바로크로 향하는 미술 발전의 문제를 제시한 Wölfflin(2004)은 "바로크도 르네상스와 동일한 형태의 체계를 사용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함이나 완결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운동감과 생동감을, 즉 규정된 틀 안에서 의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무한하게 확장하는 모습을 띤다. 아름다운 비례라는 이상은 퇴색하였으며, 존재가 아닌 생성에 흥미를 두게 되었다. 형태는 움직이고 무거우며 무디게 짜여졌고, 르네상스 시기에 정점에 달했던 건축은 부분 결합의 예술이기를 포기하였다. 과거에 극도의 독립적 인상을 추구하던 전체구성은 독립성을 결여한 부분들의 융합으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pp. 13-17). 바로크 건축 뿐 만 아니라 복식에서도 벨플린이 지적인 대로 운동감과 생동감, 정형의 이탈, 비례의 파괴 등이 다수 관찰되어진다.

전술한 바로크 시기의 과장된 헤어스타일들은 바로크 예술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특히 카드네트 스타일은 좌우가 비대칭으로 커트된 최초의 스타일

이며 바로크 예술의 특징인 고전적인 정형의 이탈, 비례의 파괴, 자유분방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현대 사회에서도 유행되기 어려운 매우 전위적인 스타일이다. 아울러 이 시대 남성의 거대 가발인 알롱쥬 가발이나 구름 가발(Fig. 6)은 열정적 곡선의 분출을 통한 운동감과 생동감, 무한하게 확장하는 생성의 바로크 정신이 발산된 사례이다. 풍탕주 스타일 역시 같은 맥락으로 규정된 틀에서 벗어나 연속적인 중첩 구조에 의해 바로크적 열정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루이 14세가 유행시킨 거창한 가발은 태양왕으로서의 강화된 절대 왕권을 상징하며, 이를 외부로 드러내고자 한 과시적 표현인데, 이는 현대 영국 법정에서 하얀 가발을 착용함으로 법정의 존엄을 상징하고 사람을 심판하는 '하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상징적 전통을 계승하여, 이 가발이 서구인에게 있어 전통적으로 권위와 존엄의 상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교묘하고 또는 노골적인 과시행동으로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데 복식을 사용했다. 왕실과 귀족의 복식은 항상 높은 지위와 부를 과시하는 요소를 포함하며,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경의와 존경을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계층 체계가 중요하고 엄격할수록 이러한 필요성은 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러한 과시 현상은 항상 나타나고 있다(Hurlock, 1990). 특히 대규모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문명화된 정치 구조에서는 복식에 착용자의 권위의 정도와 지위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Roach, 1990). 카이저는 "귀족 정치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우월자로 평가한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 이러한 유행 확산의 근거를 밝혀주었다(Sung, 2003, p. 94).

3. 18세기: 로코코 시대

1760년경 마리 앙투와네트 시대에는 높이와 장식 기교의 가능성이 극한점에 도달했다. 헤어 디자이너 레오나드 오티에(Leonard Houtière), 황실 의상 디자이너인 로즈 베르맹(Rose Verdun) 등이 머리형을 그녀의 머리를 고안하였으며, 당시 미용사는 대개 남자로서 예술가의 긍지를 갖고 있었다. 모든 계급의

여자들이 그 머리 모양을 모방하였으며, 지나치게 거대한 머리의 높이나 장식 과용은 당시 여자들의 병적인 자기 과시를 말해준다. 캡 위그(cap wig), 말털 쿠션, 철사 받침 등의 패드를 머리에 얹고 자기 머리로 패드를 덮어 역사상 가장 거대한 머리형을 연출했으며, 어떤 것은 3피트 높이에 이르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머리에 남자, 여자, 어린이 등 모두 갖가지 색의 밀가루를 과도하게 뿌리기도 하였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색은 흰색으로, 한 해 200만 파운드가 소비되어 로코코 시대의 방종과 절도 없음을 드러내준다. 이 건축적 머리형은 오랜 시간을 들여 완성함으로써 귀부인은 10일 간, 종류 계급은 3개월 정도 그대로 두어 악취를 풍겨, 머리 굽는 도구인 황금이나 상아로 가늘고 긴 빗(그라투아르, grastoir)을 항상 사용했다고 한다. 머리 장식 재료도 나무판, 인형, 태양, 달, 별, 실물의 과일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명칭도 '아름다운 화원', '사랑의 끈', '여왕' '뚝단배', '마차', '병사', '전쟁터'를 비롯해 미국 독립 전쟁 중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 거창한 머리 장식이 나타났다(Fig. 10, 11). 결발사상 가장 높은 머리형인 이 유행은 귀족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1880년대를 최후로 자취를 감추었다. Hurlock(1990)은 긴 역사 중에서도 18세기는 머리의 기형이 그 절정에 달했는데 1730년 경 부터 시작하여 머리장식은 매년 더 정교해져서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문명국들이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기형이 나타났다고 논평했다(p. 37).

Boehn(2000)은 이 시기의 로코코 예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로코코 사회는 인생을 즐기는 그 시대 사람들의 세련됨이나 정제된 예술의 향락성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이다. 로코코는 위대한 예술이 아니라 친밀한 삶의 영역을 치장하는 예술. 즉 실내 장식에서 가장 분명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8세기 양식은 사적 공간의 치장과 설비에서 이제까지의 예술이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시대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에 이르기 까지 예술로 만들어졌으므로 최고의 예술가들이 장식하는 일에 종사하게 되었고, 항상 새로운 독창적인 생각들로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다. 로코코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수수께끼 같고 불가해하며, 아름다운 교만이 만들어 낸 법칙 없는 자연의 창조물과도 같이

파악 할 수도 없고, 묘사 할 수도 없는 존재에 취한 불가사의한 환상의 꽃과 같다. 이성의 모든 법칙을 무시하고 중력의 규칙을 의문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쉽 없이 나는 듯한 유희적인 선들의 과할 정도의 풍부함에서 삶의 환락과 긍정사회의 방종이 배어 나온다. 그것은 방종한 사회를 위한 방종한 예술이었다(p. 156).

사상적으로는 18세기 후반을 계몽주의의 시대라고 한다. 두산백과는 계몽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계몽이란, 아직 미자각(未自覺) 상태에서 잠들고 있는 인간에게 이성(理性)의 빛을 던져주고, 편견이나 미망(迷妄)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계몽 사상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원의 물음에다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라는 현세(現世)의 과제가 덧붙여진다. 종교나 관습·제도의 주술(呪術)에 묶여 있는 인간을 감성적·심정적으로 해방시키고, 앞으로 쫓겨갈 과학에 대한 꿈을 고취하며, 각자가 자신의 주체성 위에 서서 새로운 세계관·치세술·창조에의 참가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였다(enlightenment, n.d.).

18세기 후반 계몽주의가 로코코 양식에 대해 새로운 형식 언어를 내놓았는데, 계몽주의는 이 시기에 주목받기 시작한 고대의 명확하고 단순한 선에서 로코코 양식에 대한 대안을 발견 한 것이다. 특히 고딕의 형식 언어는 이 시대의 낭만적 감상에 특히 가깝게 다가와 신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생겨났다. Payne (1988)은 “15세기의 이 기이한 머리장식, 부르레(bourrelet)는 마리 앙투와네트 시대에 필적할 만한 가장 이상한 형태였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p. 286), 앙투와네트의 확대형 두발(Fig. 8, 9)이 고딕 시기의 확대형 두발과 견줄 만한 과장적 스타일이라고 할 때,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아울러 로코코 시대의 확대형 두발은 로코코 양식을 반영하고, 계몽 사상에 탄력을 받으면서 과시욕에 따른 방종적인 치장 욕구에 탐닉하여, 신체 일부분을 확대 과장하여 자신의 환상을 충족시키는 추의 미가 나타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만들기 위해 장식함으로서 기쁨을 얻고자하는 욕구, 즉 자기도취증(narcissism)을 근본동기로 보는 장식설(Jung, Bae, Jo, Hyun & Kim, 2011)은 복식착용 동기이론

중 비판의 여지가 없는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패션 선도자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추종자들을 발견 할 때, 추종자들로부터의 구분을 위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처음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만든다. 그럼으로서 패션이 일단 받아들여진 후 그것들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 극단적인 것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Hurlock, 1990). Flügel은 “의복은 신체 외형적 크기를 증가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더 큰 힘의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 착용자의 운동감을 증진시켜 행동을 과장시키는 경향이나 중요성의 느낌이 증진되도록 기여한다. 따라서 의복은 확장된 자아의 일부가 되며, 자아존중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Kaiser, 1995). 로코코 시대의 극단적으로 확대 과장된 헤어스타일은 복식과의 관계에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이다. 이 시기의 의복은 파니에 두블을 통해 스커트의 좌우 방향으로 극적인 과장이 있었으나 이 헤어스타일은 동시대의 다른 복장에서 행해져 비례적으로 복식의 확대 과장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과도한 확대이다. Nystrom의 지적대로 자기 표현, 혹은 색다르게 보이고 싶은 욕구, 관습에 대한 반항, 모방심리 등(Lee, 2003)이 앙투와네트의 과도한 사치와 허영과 만나 발현된 자기 확대적 과시의 표현이며, 이를 귀족층이 추종한 모방 심리로서 해석할 수 있다.

조형적 특성으로 대상의 공간을 관찰하면, 인접 배경과의 구별이 뚜렷한 형태로서 폐쇄형이며 가장자리 윤곽이 분명히 인지되는 명료형이다. 디자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베일이 사용되어 개방형과 불명료형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디자인이 명확히 인지되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명료형이다. 스타일 전체 보다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부분적으로 인지되는 부분형이며, 여러 가지 요소와 모양들로 분할되어 인지되는 공간 분리형이며, 헤어와 장식의 상호관계는 장식 우선형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게슈탈트 편성요인은 전술한바와 같이 복식의 확대 과장 범위를 크게 벗어난 과도 확대로서 의복과의 관계와는 무관한 독단적인 ‘폐쇄성’을 지닌다. 방향은 상, 후, 좌우 등 여러 방향의 확대 과장이 이루어졌으며, 표면 효과로 인한 의미 연상은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강렬함’이 느껴진다.

4. 19세기: 낭만주의 스타일 시대

1820년대 왕정복고기에는 앞가리마를 탄 다음 정수리 쪽으로 빗어 넘겨 납작하게 틀어올리고 옆으로는 작은 고리 모양으로 곱슬곱슬하게 만 머리를 늘어뜨렸는데, 틀어 올린 머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1820년대 후반 터무니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높게 하기 위해 톱 노트(top knot, apollo's knot)가 이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 라 지라프(a la girafe)라는 별명이 붙은 기린 스타일이다(Fig. 12). 이렇게 높은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철사심을 넣어 보강하고 장식핀을 꽂아 고정시킨 다음 깃털, 리본, 꽃 등으로 장식을 하였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머리모양은 아주 수명이 짧아 1835년 경 부터 점차 낮아졌다(Black& Garland, 1997, p. 96). 이 스타일은 영국에서 이브닝 웨어용으로 처음 소개되 아폴로 노트라고 불렸다(Bae, 2008a). 1820년대 후기에 점차 높아지는 머리모양에 맞춰 모자가 점점 커지고, 1830년대 초에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변하고 높고 커다란 모체에 고래 수염으로 심을 넣어 넓게 뻗어나간 거대한 차양의 보닛이 출현하였는데 대개는 심을 넣은 커다란 리본, 꽃, 깃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되고(Black& Garland, 1997) 다른 복식들처럼 광적인 과장 심리의 영향을 받은 결과(Payne, 1988), 헤어스타일처럼 기이한 과장형의 모자가 나왔다. 두산백과는 낭만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이성에 대한 회의와 혁명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취약한 면에 대한 정신의 패허 위에 자신의 심성에 맞는 문화를 이룩하려고 한 것이 정신의 본질이며, 그 결과 자아에 대한 확인과 그 내부로의 침잠(沈潛)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내면에 진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금까지 경시되었던 감각현상들에서 인간성의 진실을 찾으려 한 사조이다 (romanticism, n.d.).

사회적으로 로맨틱 스타일 시기는 귀족 중심사회가 재개되었고, 생활 전반에는 지난날의 기호와 양식이 소생하기 시작했다. 낭만주의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등 과거를 동경하여 현실이 아닌 과

거의 시대에서 그 이상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혁명 이전의 귀족을 연상하게 하는 복고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복식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과거의 복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복고풍으로 패서너블한 여성임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Kim, 2010). 따라서 아폴로 노트형은 바로크 시기의 풍탕주 스타일 또는 로코코 시기의 앙트와네트 스타일을 변형한 복고적 형태로 추론 할 수 있다.

낭만주의 시대의 의복은 <Fig. 12>에서 보듯이 극단적인 X 실루엣에 발목이 노출될 정도로 길이가 짧은 스커트에 플랫 슈즈를 착용하였다. 따라서 넓은 어깨와 넓은 스커트 실루엣으로 인한 수평 확장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는 실제보다 키가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유발된다. 아폴로 노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시선을 수직으로 상승시켜 완충 역할을 하여, 수평과 수직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의 공간 관찰에서, 장식의 형태가 뚜렷이 인지되어 인접 배경과의 구별이 명확함으로 폐쇄형, 명료형이다. 스타일 전체보다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부분적으로 인지되는 부분형이며, 여러 가지 요소와 모양들로 분할되어 인지되는 공간분리형이다. 헤어와 장식의 상호 관계는 높이 치솟은 과장 형태에도 불구하고 헤어로 형태를 조성한 것이 추가 되며 장식이 보조 역할을 함으로 ‘헤어 우선형’이 대부분이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계슈탈트 편성 요인은 일차적으로는 폐쇄성의 특성 파악되지만, 사용된 장식들이 의상에 사용된 장식, 리본이나 레이스, 깃털, 꽃 등과 유사한 디자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연속성이 부여된다. 의미연상은 위로 높이 켜지게 틀어 올려진 형태에서 독특한 긴장감을 주는 ‘홍분감’의 정서가 유발되어진다.

IV. 결론

본고는 서양 복식 관련 서적과 논문을 통해 서양의 역사 복식 가운데 헤어스타일의 과장 현상을 고찰하였으며, Delong의 인체와 그 위에 착용된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시각 형태를 분석하

는 기준을 도입하여 헤어스타일 및 의복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시각 형태를 분석하여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상사회심리학적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된 현상을 내용분석하여 미적 특성을 유추하였다.

1. 역사 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1) 먼저 Delong의 분석기준 가운데 대상(헤어스타일)의 공간을 살펴보면, 17세기 남성의 카드네트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헤어스타일이 인접 배경과는 확연히 구분됨으로 폐쇄형, 헤어스타일 전체로 인지되기 보다는 부분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인지되는 디자인임으로 부분형, 헤어스타일의 가장자리선이 명확하게 인지되는 명료형, 평면적 디자인이 아닌 입체형, 헤어스타일 전체의 모양이 바탕으로부터 분리되는 형태로서 공간분리형이 많다. 게슈탈트 원리에 의한 부분과 전체형의 관계는, 헤어스타일과 복식 전체의 관계로 대입되는데, 헤어스타일이라는 부분이 복식 전체와 연결이 이루어지는 '연속성'이 가장 많으며(부르레 스타일, 템플러 스타일, 카드네트, 풍탕주, 아폴로노트), 그 다음으로 부분들이 전체로부터 이탈되거나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는 폐쇄성(거대한 가발, 앙트와네트 스타일), 부분들이 근접한 공간적 배치의 유사성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음으로 인해 그룹으로 지각되는 근접성(풍탕주), 유사한 부분들이 동일한 차원 내지 동일한 평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사성(풍탕주)이 고루 나타난다. 따라서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확연히 인지되는 강조 형태의 디자인이 추구되며, 대부분 의복과 관련되어 발전하지만 의복을 능가하여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면 효과에 의한 의미 연상을 보면, 조성된 형태가 입체적으로 명확하고 뚜렷하게 인지되며, 디자인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인식됨으로 인해 강조되어 보이는 '강렬함(strength)'의 효과가 대부분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특이성이 돋보이는 '흥분감(exciment)'의 (이마와 목덜미의 극단적인 면도, 카드네트 스타일, 아폴로 노트 등) 감

정이 유발된다. 우아함(delicacy)의 추구는 강렬함을 수반하며 동시에 추구되는 경향(템플러를 사용한 스타일, 풍탕주)이 있으며, 과장의 특성상 '평온함(calmness)'의 감정은 유발되지 않는다.

2) 헤어스타일이 확대되는 방향은 대부분 상향 지향적이며, 다음으로 좌우와 후방 확대 현상이 있고, 드물게 17세기 풍탕주 스타일에서는 상향과 하향의 확대가 동시에 추구되었으며, 남성의 거대한 가발에서는 장식이나 보강재가 없는 상태 하에서 가능한 상향, 좌우, 하방 확대가 전체적으로 추구되었다.

3)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한정된 머리카락의 양을 초월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보강재가 사용되며 이를 가리기 위한 기능적 필요와 장식을 위해 장식품들의 사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헤어와 장식의 상호 관계는 과장이 극대화되면서 장식이 헤어의 '양'을 초월하는 '장식 우선형' 스타일이 추구된다. 따라서 15세기 고딕 시기와 19세기 낭만주의 시기에는 과도한 장식품이 사용되며, 장식과 모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4) 남성의 과장적 스타일은 17세기에만 나타나며, 동시대 남성 의복에는 과잉 장식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과장적 헤어스타일에서는 장식이 배제되는데, 이는 남성의 성적 정체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대칭 커트에 의한 길이의 왜곡(카드네트)과 볼륨 있는 강한 웨이브가 진 거대한 가발 등, 머리카락의 양과 질감만으로 과장적 스타일을 조성하였다. 특히 카드네트 스타일은 개방형, 전체형, 평면형, 불명료형, 공간통합형, 헤어우선형 등 다른 과장적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시각 형태를 보임으로 다른 스타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조형성을 지닌 과장적 헤어스타일이라 할 수 있다.

조형적 특성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뚜렷하고 명확하며, 강렬하게 인지되는 '강조'의 형태를 추구하며 '강렬함'의 감정을 수반하여 주목을 끄는 양식이 추구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부와 계급, 권위, 우월감을 표출하려는 의도가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디자인 형태라 할 수 있으며, 탐닉적인 치장 욕구가 극한까지 다다른 구성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헤어스타일 부분과

복식 전체를 포함하는 관계를 보면 의복을 증가하여 패션의 중심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상호 연결되는 '유사성'이 형성되는 것은 과장적 헤어스타일이라 할 지라도 의복과의 관계 속에서 연속성을 추구하며 과장된 의복 스타일과 상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디자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의 미적 특성을 유추하는데 단초를 제공해주어야 하겠다.

2. 역사 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미적 특성

이상으로 도출된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상사회심리학적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된 현상을 내용 분석하여 1)시대 정신의 발현, 2)부, 계급, 권위, 우월감의 상징, 3) 탐닉적 치장욕구의 추구, 4) 의복과의 연속성에 의한 조화 등으로 미적특성을 유추하였다.

1) 시대 정신의 발현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동시대의 예술, 문화, 정치, 사회, 사상, 종교 등의 시대정신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하나의 단면이다. 15세기는 고딕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동시적 공존, 십자군전쟁의 실패와 페스트 등의 재난으로 인한 종교에 대한 회의와 현실적 삶의 추구,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과 시민정신, 17세기는 르네상스의 고전미학의 비례를 거부하고 규정된 틀 안에서 벗어나 생동하는 바로크의 예술 정신, 그리고 왕권을 확립한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 18세기는 로코코의 사회의 방종적이고 향락적 분위기와 계몽주의의에 의한 종교와 관습으로 부터의 해방추구, 로코코 양식에 대한 대안으로 출현한 고딕형식언어, 19세기 낭만주의 시기는 귀족중심사회의 재개와 생활전반에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에 대한 동경으로 인한 복고적 분위기의 조성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정신들이 동시대의 과장적 헤어스타일에 투영되어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다.

2) 부, 계급, 권위, 우월감의 상징

역사에서 왕실과 귀족들은 높은 지위와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해왔다. 대규모 문화를 형성하는 문명화된 정치구조에서는 복식에 착용장의 권위의 정도와 지위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15세기에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과 그들의 과도한 부의 과시가 더해졌고, 17세기에는 바로크 정신에 기초한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절대 왕권을 확립한 루이 14세의 권위와 위엄의 표출이 극단에 이른다.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 헤어스타일이나 19세기 아폴로 노트 역시 도취적 우월감이나 귀족적 계급에 대한 동경, 및 상징의 심리가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탐닉적 치장욕구의 추구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만들기 위해 장식함으로서 기쁨을 얻고자하는 욕구, 즉 자기 도취증(narcissism)을 근본동기로 보는 장식설은 복식착용 동기 이론 중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다. 이러한 본능적 욕구가 이를 분출할 수 있는 시대정신(예술, 사상, 사회상 등)과 합일될 때 탐닉적으로 추구되며 극단에 이르게 된다. 패션선도자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추종자들을 발견 할 때, 추종자들로 부터의 구분을 위해 독창적인 스타일을 처음보다 좀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고 한다. 이리하여 과장적 스타일은 가속되며 계속 과장되어진다. 15세기의 기이한 형태를 비롯해 18세기 마리 앙투아네트 헤어스타일은 환락과 방종의 산물로서 나르시즘적인 치장욕구에 탐닉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모든 과장적 헤어스타일이 추구되는 인간의 내면심리라 하겠다.

4) 의복과의 연속성에 의한 조화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대부분 의복과 시각적인 연속성을 가지며 조성되고 있다. 15세기 과장적 헤어스타일은 확대된 소매와 길게 늘어진 트레인, 기이한 소매라인, 화려한 외관 등과 균형을 이루며, 17세기 카드네트는 고전미학에서 이탈한 험령한 실루엣으로 복식전체가 자유분방함이 추구되었으며, 풍탕주는 수직적 라인과 스커트 트레인의 확대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소매 끝이나 가슴부분의 레이스 소재가 근접하며 반복되는, '연속성'의 조화를 이룬다. 19세기 아폴로노트도 수평확대된 의상에 수직적 라인 형성으로 완충역할을 하며 사용된 장식들에서 의복의 장식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되었다. 다만 17세기 후반에 유행한 거대한 가발과 쥐스토코르의 조합, 그리고 18세기 마리 앙투와네트 스타일과 동시대에 유행된 여러 가지 가운데와의 조합은 상호 단절되는 '폐쇄성'으로 의복과 연계되지 않은, 이상심리가 극단적으로 추구된 사례이다.

이상으로, 본고를 통해 헤어스타일은 복식의 일부분으로 의복과 연계하여, 혹은 그 이상을 추구하며 인간 내면 심리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시대의 정신 즉 예술, 문화, 사회, 종교, 사상 등이 외부로 나타나 조성되는 표현 양식임을 확인하였다. 복식 확대 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후속 연구로 역사복식에 나타난 과장적 헤어스타일의 미적특성을 유추하였는 바, 본 연구가 복식 과장 현상의 연구 결과를 축적, 확장하며, 아울러 복식을 통한 인간행위 탐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 Akinory O. (1999). *Boksicsahwihakyeongu* [服裝社會學入門]. (I. L. Pak,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chunsa.
- Bae S. J. (2008). *Modern Fashion and cultural history of Western costume*. Seoul, Republic of Korea: Suhaksa.
- Bae S. M. (2008). *A Study on Formative Exaggeration Phenomenon in Fashion through Indexical Consideration of DeLong's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Black, J. A. & Garland, M. (1997). *A history of fashion I*. (G. S. Yun,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Jajak academy.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Boehn, M. V. (2000). *Die Mode*. (J. W.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Hangil 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96)
- DeLong, M. R. (1997). *The way we look*. (G. S. Ku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Ism.
- Enlightenment. (n.d.). In *Dictionary of Doopida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0835&cid=40942&categoryId=31514>.
- Exaggerate. (n.d.). In *Dictionary of Naver online*. Retrieved from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50000>
- Go, Y. L. (2008). *Western costume culture and history*.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hairstyle. (n.d.- b) In *Fashion Dictionary online* [Naver 지식백과:모발학사전]. Yu Y. J. etc. (2003).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3873&cid=42407&categoryId=42407>
- Hairstyle. (n.d.-a). In *Fashion Dictionary online* [Naver 지식백과:패션전문자료사전].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0233&cid=42822&categoryId=42822>
- Hats (1998). *A Pepin press design book*. Amsterdam, Netherland.
- Horne, M. & Gurrel L. (1998).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H. Y.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kachi.
- Hurlock, E. B.(1990). *The psychology of dress*. (S. J. L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Jung M. S., Bae S. J., Jo H. J., Hyun, S. H., & Kim S. Y. (2011). *Fashion and culture*. Gwangju, Republic of Korea: Jeonnam university published.
- Jung, H. S. (1999). *History of western costume culture*.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Kaiser S. B (199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 S.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chunsa.
- Kim H. J. & Kim S. J.(2005). A Study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ymbolic Meanings of the Exaggeration Type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Dress Code Research*, 13(6), 883-895.
- Kim J. M.(2010).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aesthetic values of Romantic style dress. *Journal of the Fashionbusiness*, 14(2), 95-109.
- Lee I. J. (2003). *Psychology of clothing*. Seoul, Republic of Korea: Kyomunsa.
- Lim, L. & Kim Y. J. (2007). A Study 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Enlargement Hair Type. *Journal of the Costume*, 57(4), 143-158.
- Payne, B. (1988). *History of costume*. (J. N.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65)
- Renaissance. (n.d.). In *Doopedia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_method=view&MAS_IDX=101013000839017
- Roach, M. E. (1990). *Visible self*. (Y. K.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Kyungchunsa.
- Romanticism. (n.d.). In *Dictionary of Doopida online*. Retrieved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504&cid=40942&categoryId=32856>
- Sung K. S. (2003). *The Aesthtic value of Voluminous Enlargement in the Western Costum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Wölfflin H. (2004). *Kunstgeschichtliche grundbegriffe*. (J. H. Park,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Cygo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15)